

CANKS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19.11.20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주알마티 총영사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알마티 한국교육원

제2회 한국학주간

한국외대

한국국제교류재단

중앙아시아연구소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제 2 회 한국학주간 특집

2019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에서 제 2회 한국학주간이 개최되었다.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고려대 한국어센터, 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관, 알마티 한국교육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등 국내외 여러 대학 및 기관과 함께 한국학주간을 기획하였다. 한국학주간에는 14일에 진행된 김흥수 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한국학특강시리즈, 제 10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제 5회 CIS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등 다양한 교육, 연구, 교류 행사가 개최되었다.

카자흐 세계언어대
제 2 회 한국학주간
한국학특강시리즈

(관련기사 pp.2-3)

제 10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제 5 회 CIS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관련기사 p.4-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제 38 회 국제학술회의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제 9 차 국제세미나

(관련기사 p.6)

국립국어원-국민대
2019 단기한국어교실
대학생 교류의 날

(관련기사 p.7)

제 7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2019 중앙아 한교협
정기총회

(관련기사 p.8)

* 이 뉴스레터는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canks.asi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중앙아시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Tole bi 84,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canks.asia>
E-mail: cks@ablaikhan.kz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제 2 회 한국학주간

2019 년 11 월 14 일부터 16 일까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에서 제 2 회 한국학주간 이 개최되었다.

세계언어대는 1993 년 제 2 외국어로서 한국어 강의가 시작되었으며, 1998 년부터 정식으로 한국학 강좌가 개설되었다. 2012 년 한국학센터를 개설하여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5 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해외중핵대학사업에 선정되어 학술지와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학술대회와 경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아시아 한국학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총 수강생이 407 명(전공생 363 명) 달하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한국학 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고려대 한국어센터, 주알마티 대한민국의총영사관, 알마티 한국교육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등 국내외 여러 대학 및 기관과 함께 한국학주간을 기획하였다. 한국학주간에는 14 일에 진행된 김홍수 주알마티 대한민국의총영사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한국학특강시리즈, 제 5 회 CIS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국학 학술대회, 제 10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등 다양한 교육, 연구, 교류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카자흐 세계언어대, 카자흐 국립대, 유라시아 국립대, 나자르바예프대, 크질오르다 국립대, 동카자흐 국립대, 타라즈 사범대(이상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한국대, 키르기스 한국대, 비슈케크 인문대, 나자르바예프대(이상 키르기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사범대, 사마르칸트 국립외대(이상 우즈베키스탄), 모스크바 국립언어대, 러시아 고등경제대,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이상 러시아), 키예프 국립언어대(우크라이나), 고려대, 서강대, 한국외대(이상 한국) 등 6 개국 12 개 도시 20 개 대학에서 120 명의 학생, 교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올해 한국학주간은 16 일 폐회식 및 시상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올림피아드에서 1 등을 차지한 자나바이 아크제르(세계언어대 4 학년) 양에게는 700 달러의 상금과 함께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후원하여 1 년 간 한국어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



한국학특강시리즈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2019년 11월 13일(수)부터 16일(토)까지 한국학특강시리즈를 개최하였다. 한국학특강시리즈는 제2회 한국학주간의 일환으로 교내외 인사를 초청하여 나흘에 걸쳐 매일 한 강좌씩 진행되었다.

김흥수 총영사는 14일(목)에 개최된 초청강연에서 “독도 그리고 동해”를 주제로 하여, 카자흐스탄 학생들에게 생소한 한일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일 양국의 주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국내외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독도와 동해 문제에 대해 한국이 주장하는 근거들을 짚어볼 수 있었다. 또한 외교적으로 복잡한 정세를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비교적 쉽게 설명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관은 최근 독도와 동해를 주제로 미디어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일련의 행사를 통하여 카자흐스탄 현지에 독도와 동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소개하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에 주력해 왔다.

이외에도 김 올레크 대표(법무법인 CIS Group)의 “취업을 위한 통번역 능력의 향상”, 한 넬리 소장(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의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의 한국학 현황”, 공임순 교수(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의 “한국 문학의 어제와 오늘” 등 한국학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14일 김흥수 총영사의 강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제2회 한국학주간에는 16일까지 3일 동안 한국학특강시리즈, 학술대회, 경시대회 등 다양한 한국학 행사가 개최되었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올해 행사에는 세계언어대, 카자흐 국립대, 유라시아 국립대, 나자르바예프대, 크질오르다 국립대, 동카자흐 국립대, 타라즈 사범대(이상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한국대, 키르기스 한국대학, 비슈케크 인문대, 아라바예프대(키르기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사범대, 사마르칸트 국립외대(이상 우즈베키스탄), 모스크바 국립언어대, 러시아 고등경제대,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이상 러시아), 키예프 국립언어대(우크라이나), 고려대, 서강대, 한국외대(이상 한국) 등 6개국 12개 도시 20개 대학에서 학생, 교원 및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하였다.



제 10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제 2 회 한국학주간의 일환으로 2019년 11월 15일(금)부터 16일(토)까지 이틀에 걸쳐 제 10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를 개최하였다.

이번 경시대회에는 알마티, 누르술탄(구 아스타나), 크질오르다,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타라즈, 비슈케크,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모스크바, 노보시비르스크, 키예프 등 5 개국 11 개 도시 17 개 대학에서 자체 예선을 거쳐 선발된 31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다.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와 고려대 한국어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관, 알마티 한국교육원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명실공히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학생 언어경시대회이다.

전체 개회식은 15일 세계언어대 동양학캠퍼스 210호에서 진행되었다. 개회식을 마치고 자리를 옮겨 테스트와 작문이 실시되었고, 이튿날 말하기가 실시되었다. 말하기 부문은 남현우 원장(알마티 한국교육원), 장경준 교수(고려대 국문과), 공임순 교수(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박상배 소장(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사무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기억에 남는 선물', '내가 만약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중 선정된 주제에 대해 발표한 참가자들을 심사하였다.

시상식을 겸한 폐회식에서는 박상배 소장과 장경준 교수가 한국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한 학생들과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심사 결과에 따라 1 등 700 달러(자나바이 아크제르, 세계언어대), 2 등 500 달러(술타날리 울잔, 세계언어대), 3 등 300 달러(에르킨바예바 닷카임, 키르기스 한국대), 장려상 8명 50 달러씩의 상금이 주어졌다. 특히 1 등을 차지한 자나바이 아크제르 양에게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어연수펠로십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대학에서 1년간 언어연수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10 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의 후원으로 여러 도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었다.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소장 한 넬리)는 입상에 실패한 참가자들을 위해 기념품과 참가증명서를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참가국과 대학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제 5 회 CIS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2019년 11월 15일(금) - 16일(토) 이틀에 걸쳐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 동양학캠퍼스에서 세계언어대 제 2 회 한국학주간의 일환으로 제 5 회 CIS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문후속세대양성과 학술교류활성화를 통한 한국학 기반강화를 위해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고려대 한국어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등이 후원하였다.

2016년 4월 제 1 회 대회, 2016년 11월 제 2 회 대회, 2017년 11월 제 3 회 대회, 2018년 11월 제 4 회 대회에 이어 5 회째를 맞이한 올해 학술대회는 카자흐 세계언어대, 카자흐 국립대, 유라시아 국립대, 나자르바예프대, 크질오르다 국립대, 동카자흐 국립대, 타라즈 사범대(이상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한국대(키르기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사범대(우즈베키스탄), 모스크바 국립언어대, 러시아 고등경제대,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이상 러시아), 키예프 국립언어대(우크라이나) 등 5 개국 10 개도시 13 개 대학에서 학생 및 관계자 약 100 명이 참석하여 한국학을 주제로 "21 세기 한국 문학에 김훈 작품의 영향"(김 엘레나, 타슈켄트 니자미사범대 석사 1 학년), "남북관계가 북미간 핵 협상에 갖는 함의: 전략적 삼각형을 통한 설명"(마이타노바 라우라, 나자르바예프대 3 학년) 등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박 넬리 교수(카자흐 세계언어대 중핵사업단장)는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한국학 교원들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기에 한국학의 미래가 밝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 명예회장인 백태현 교수(키르기스 한국대)도 여러 대학에서 참가한 학생들의 발표 수준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고,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소장 한 넬리)는 CIS 지역의 한국학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참가국과 대학의 수를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북아문화학회 제 38 회 국제학술대회

지난 7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에 걸쳐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제 38 회 국제학술대회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 동양학캠퍼스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 위치한 키르기스 한국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동북아시아문화학회와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 부경대학교가 후원하였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일본, 한국의 4 개국 15 개 대학에서 참석한 50 여 명의 학자 및 관계자들은 “신북방: 중앙아시아 속의 동아시아 문화”를 주제로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교류의 역사적인 측면과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6 일과 8 일에는 각각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를 방문하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회원들이 소속된 한국과 일본의 12 개 대학 및 기관에 대하여 소개하고, 카자흐 세계언어대, 중앙아시아 한국대, 키르기스 한국대 등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제 9 차 국제세미나

지난 7월 9일 2019년도 국제세미나(9 차) “한국, 중앙아시아 문화사회 비교연구”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 동양학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한국사회정책연구원, 한-중앙-북부아시아 사회정책학회,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카자흐스탄, 몽골, 한국에서 30 여 명의 연구자들이 참석하였다.

투르크 및 알타이 문화권의 몽골과 카자흐스탄은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및 유럽시장 진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주요 거점이기때 전략적 신흥국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세미나에서는 “러시아, EU, 한국에서의 중앙아시아 노동 이민”,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난 몽골의 종교 정책”,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언어와 문화 보존”, “다민족국가인 카자흐스탄의 언어 정책” 등 카자흐스탄, 몽골, 한국의 사회 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단기한국어교실, 대학생 교류의 날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와 국민대 국외실습지원사업단(단장 이동은 교수)이 공동으로 주관한 "2019 카자흐스탄 단기한국어교실"이 7월 18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7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에서 파견된 경력교원 2명과 예비교원 6명이 카자흐스탄 전역의 17개 도시 및 지역에서 참가한 120여 명의 학생들과 한국어 수업 외에도 손글씨대회, K-POP 경연, 탈 만들기 및 복면가왕 노래자랑 등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한국에서 파견된 교원들과 카자흐스탄 현지의 교원들이 만나 효과적인 교수법과 교수 자료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오루조바 엘미라(나자르바예프 영재학교 12학년) 양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멀리 카라간다에서 왔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한국인 선생님들과 수업을 할 수 있어서 한국어 회화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한국인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대화해 보면서 조금씩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재미 있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여름마다 이런 캠프가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9월 21일(토)에는 카자흐 세계언어대에서 "대학생 교류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국민대 국외파견실습사업단이 주관한 "2019 한국어예비교원 국외실습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국외실습단은 9월과 10월에 경력교원 4명과 예비교원 17명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파견하여 고려주 말학교, 자라한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9월 21일에는 카자흐 세계언어대에서, 28일에는 카자흐 국립대에서 대학생 교류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카자흐 세계언어대에서는 대학생 교류의 날 행사에 세계언어대 학생 80여 명이 참여하여 윷놀이, 제기차기, 공기놀이, 사방치기, 비석치기 등 한국의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며,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젊은이들의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2017년부터 계속된 한국어예비교원 국외실습사업은 국내 한국어 예비교원의 실습현장 다양화를 위해 올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일본, 러시아 등에서 개최되었다.



제 7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6월 21일(금)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소재 다마스호텔에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회장. 나삼일 상명대 교수)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회장 박 넬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 27 회 국제학술대회 겸 제 7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언어문화교육”과 “중앙아시아의 한국학과 관광산업”을 주제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이하 INK)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이하 중앙아 한교협)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와 중앙아시아 한국대 유라시아미래연구원이 주관하였으며, 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고, (주)도서출판 하우, (주)박이정, (주)시사복스, (주)세잎누리가 협찬하였다. 학술대회에 대한 국내외의 많은 관심 속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불가리아, 헝가리, 일본, 한국의 8 개국 20 개 도시, 48 개 대학 및 기관에서 120 여 명의 한국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개회식은 나삼일 회장(INK)의 개회사, 박 넬리 회장(중앙아 한교협)의 환영사로 시작되어, 하태역 대사(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강현화 이사장(세종학당재단), 박상배 소장(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사무소), 성필상 소장(한국관광공사 알마티사무소) 등의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중앙아시아 한국학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아 한교협은 학술대회를 마친 후 이식쿨로 자리를 옮겨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2014년 출범한 중앙아 한교협은 인터넷홈페이지(<http://canks.asia>)를 개설하고,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연 1 회)와 소식지 <한국학뉴스레터>(연 2 회)를 발행하는 등 중앙아시아 한국학 대학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통해 박 넬리 회장과 이근중 부회장(KIMEP 대) 등 현 임원진을 비롯하여 전 임원진인 백태현 명예회장(키르기스 한국대), 장호종 교수(카자흐 세계언어대)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한국학 발전을 위한 지난 몇 년 간의 중앙아 한교협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